

2017

연차보고서



02	동물자유연대
03	이슈대응
10	캠페인·교육
16	입법·정책 및 연구조사
21	나눔사업
24	반려동물복지센터
28	재정보고

동물자유연대



미션

동물자유연대는 인간에 의해 관리되는 모든 동물들이 인도적인 대우를 받게 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인간에 의해 이용되거나,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동물의 수(數)와 종(種)을 줄여나감으로써,
인간과 동물이 생태적·윤리적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핵심가치

동물을 생명체로
존중하는 마음

배려와 생활방식의
변화

동물의 대변자

과학과 생명윤리의
합리적 기반

문화로 정착되는
동물보호
협력과 성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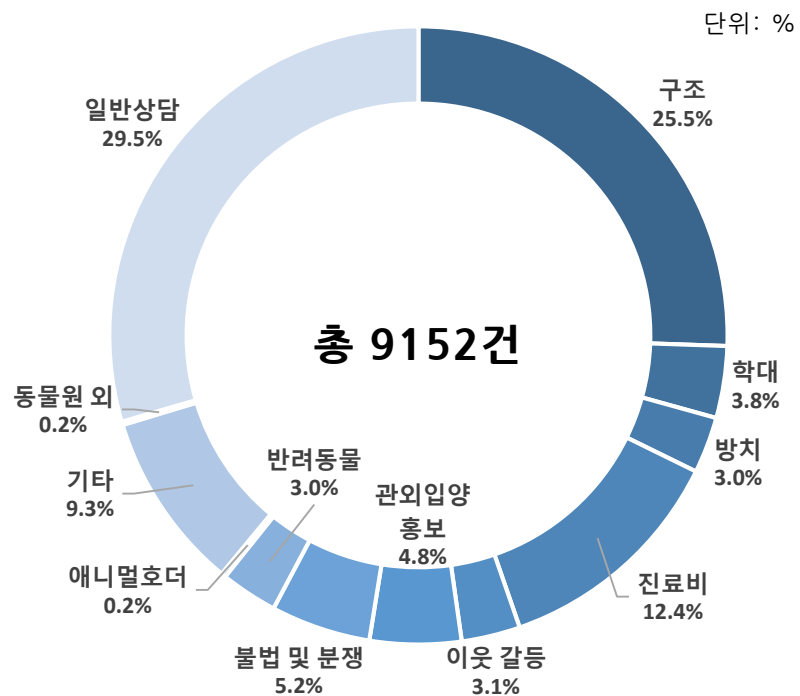


이슈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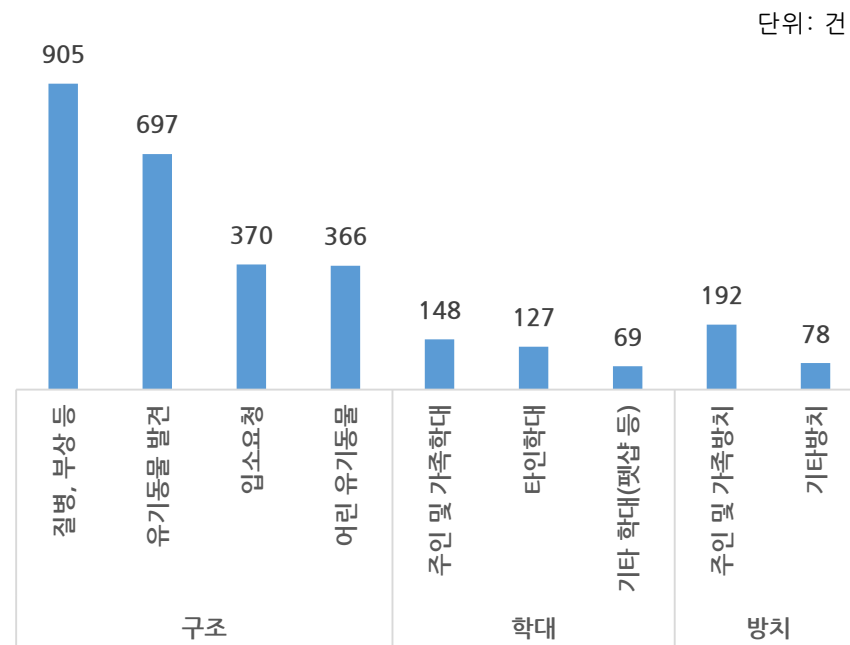
시흥시 불법번식장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동동이

이슈대응

2017 주제별 제보/상담 통계



2017 구조, 학대, 방치 제보 현황



2017 주요 동물구조 활동



시흥 불법번식장
화재 현장에서 살아남은
개 81마리 구조

여주 개농장의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생존한
개 17마리 구조

음식물쓰레기 처리 기계로 살던
공주 개농장
개 22마리 구조

부산 기장군 불법번식장의
개와 고양이 32마리 구조

* 2017년 동물보호법위반 총 27건 고발

이슈대응



■ 불법 번식장 및 판매업 현장 구조

불법 생산·판매는 여전히 우리 주변 은밀한 곳에 숨어들어 있으며,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학대와 생명에 대한 유린이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에서는 2017년 불법 생산·판매업 3차례 고발 및 현장 고발을 통해 123마리의 동물을 구조하는 한편, 고통 받는 반려동물을 위해 생산과 유통, 소비 등 다각면에서 변화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 동물학대 및 동물보호법 위반 고발

동물보호법에 대한 숙지 부족과 동물학대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경찰의 미온적 대처 및 수사인지 부족 그리고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동물학대는 더욱 잔혹해지고 있으며, 고통 받는 동물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2017년 동물학대 및 동물보호법 위반 27건을 고발하는 한편, 구조, 동물학대범 처벌 강화에 대한 시민참여 요청, 입법 활동 등 동물보호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 ‘전기개도살 무죄판결’ 항소심 공동대응(현재 대법원 상고중)

동물자유연대 및 다른 동물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하여 인천지법의 ‘전기개도살 무죄판결’을 뒤집기 위해 노력했지만 항소 기각되었습니다. 검사의 상고로 원심을 뒤집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 불법 개농장 구조

여주 개농장주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9,473명의 서명을 수원지방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덕분에 검찰의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를 뒤집고 최종적으로 피의자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여주 구조견 유리화 자비의 자견 8마리는 모두 미국으로 입양이 완료되었으며, 공주 구조견들은 2018년 4월 국제단체를 통해 국외입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슈대응

■ 상업 모바일앱 동물판매 카테고리 삭제

모바일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반려동물까지 거래하는 모바일쇼핑앱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모바일 거래의 확대는 동물을 쉽게 사고 파는 문화를 조장할 뿐 아니라 거래과정에서 동물의 안전 역시 보장할 수 없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모니터링을 통해 쇼핑앱 내에서 동물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카테고리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대응

2016년부터 시작된 AI의 창궐은 2017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는 한편, AI 음성 판정을 받은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 농장의 예방적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예방적 살처분은 건강한 동물들을 죽이는 대량 동물학대일 뿐이며 방역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비과학적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6월에는 참사랑 농장을 지원하기 위해 네오위즈 마법나무재단과 함께 동물복지 달걀을 구매, 취약계층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슈대응

■ 대포, 금등이 방류

정부기관 및 동물자유연대의 공동 협력으로 대포와 금등이 제주 바다로 귀향하였습니다. 동물자유연대의 주도로 2013년 제돌이 방류 이후 2017년 대포와 금등까지 총 7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고향인 제주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서울대공원의 마지막 남은 큰 돌고래 태지는 바다로 가지 못하고 제주 퍼시픽랜드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 돌고래 수입 및 학살 반대

울산남구청이 다이지에서 수입한 돌고래 중 1마리가 학대에 가까운 이송과정에서 받은 충격과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폐사된 책임을 울산 남구청장에게 묻기 위해 울산지검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이어 일본 다이지 돌고래 대량 학살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과 함께, 노르웨이 밍크고래 학살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돌고래 학살을 막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전시동물 사육환경 모니터링 및 개선 요구

전시동물은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감에도 그 환경조차 열악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나치게 좁은 사육공간, 불결한 위생관리, 혹서와 혹한에 방치 등이 전시동물의 건강뿐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하기도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춘천 달맞이 공원, 강화도 체험아기동물원, 비발디파크 등에 요구해 전시 동물들의 은신공간 마련, 케이지 교체 등 사육환경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슈대응



“사람이 동물보다 우위에 있으며, 동물의 생명은 사람이 좌우해도 될 만큼 가볍게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 속에서 동물학대는 더욱 더 잔인해지고 있으며, 고통 받는 동물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는 힘없는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면서 결국 그 폭력성이 인간에게 전이되는 특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동물학대를 그저 동물에게 해코지 하는 행위 정도로만 여기지 말고, 동물보호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넣어 생명존중과 동물학대 문제에 대해 교육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정책팀 조영수 활동가

“동물은 어떤 누구의 소유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고파는 물건은 더욱 아니겠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매매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일부 제한만 할 뿐입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해도 동물의 매매행위를 금지하고 최소한의 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동물보호 인식 및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책팀 송지성 활동가

“어쩌면 농장동물은 반려동물보다 더 인간에게 가까운 동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곁에 두지는 않지만, 식품으로 섭취해 우리의 일부분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축산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공장식 축산은 지구상 가장 잔인한 학대라고 불립니다. 공장식 축산 시스템 아래 고통 받는 동물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정책팀 강정미 활동가



캠페인·교육

THE BODY SHOP과 진행한
화장품 동물실험 완전 금지 캠페인

캠페인



3,300명

STOP IT 2017
고통없는 복날 캠페인
참여 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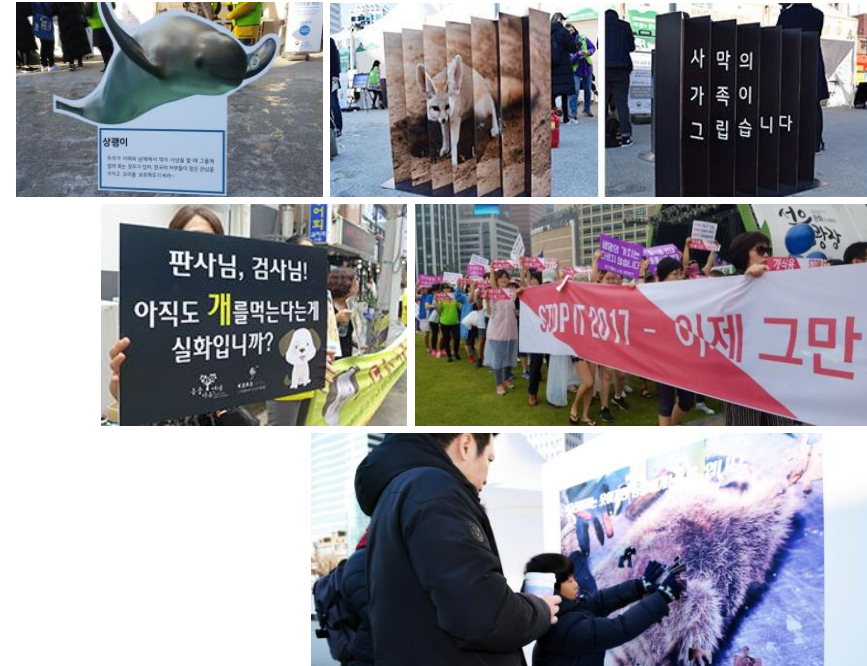
14대 + 5곳

7개 노선 14대 버스
지하철 5곳 역사
개식용 반대 광고 진행



500명

환경부 공동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서명 참여



캠페인



■ ‘STOP IT 2017’ 개최 및 ‘고통 없는 복날’ 말북캠페인

개식용 종식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서울 시청 광장에서 동물보호단체, 환경단체, 수의사단체 등 40여개 단체 및 시민 3000명과 함께 대규모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보신탕집이 밀집한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점심식사를 하러 나온 시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채식 버거와 복숭아를 나눠준 뒤 피켓 시위와 거리행진을 진행하였습니다.

■ 개식용 반대 버스·지하철 광고 진행

총 3개의 광고시안(다르지 않아요 2개 버전, 복날이 무서워요)으로 보신탕집이 집중된 제기동, 중장년층 유동인구가 많은 종로 3가, 을지로3가역 등에 광고를 진행하여 개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시민의 인식개선을 유도하였습니다.

■ 화장품 동물실험 완전 금지 캠페인

2016년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화장품법이 통과됐지만 예외규정으로 여전히 많은 동물들이 화장품 개발을 위한 실험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더바디샵과 화장품 동물실험 완전금지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고, 향후 생명존중 인식 교육 사업으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 야생동물보호 환경부 공동 캠페인

우거진 숲을 뺄고, 넓은 하늘을 날던 동물들이 인간의 이기심으로 좁은 철망에 갇혀 지내거나 생명과 함께 그들의 털과 가죽을 내주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의 불법 수입과 사육을 막고, 가축제품을 위한 야생동물의 희생을 막기 위해 환경부와 함께 시민참여형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 Fur Free Campaign

한국에 모피농장은 없으나, 유난히 많은 모피 장식 제품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변화시켜 기업 역시 변화되도록 시민운동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Fur Free Campaign을 기획, 실제적인 모금보다는 지속적인 노출을 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21,890명

키자니아 동물보호 교육



123개 어린이집

유아 동물보호 교육



90명

동물활동가 전문역량 교육

■ 키자니아 동물 보호 교육

어린이 인성 교육으로 동물과의 교감을 통하여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보호자의 동물 의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동물 활동가 체험을 통하여 동물 감성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 유아 동물 보호 교육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설명이 담긴 동영상과 학습지/지도서를 통하여 유아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 사랑 실천 메시지를 담아 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아의 동물에 대한 이해와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였습니다.

■ 초등학생 동물 보호 교육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동물보호와 동물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경기도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동영상과 교사 지도서, PPT, 티칭맵 등을 배포하였습니다.

■ 동물 활동가 소양/역량 교육

동물단체 및 개인 활동가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여 발생하는 동물관련 이슈들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문제해결 전문성을 증진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국외 우수 사례 조사 및 동물 단체 탐방을 진행하여 동물복지 선진국의 활동을 수학하였습니다.



캠페인·교육



“작년 강아지 공장의 파장에 비해 올해 있었던 여주 개농장 아사 사건은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시민들의 반응에는 온도차가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모란시장이나 구포시장의 변화 등 차츰 우리 사회의 개식용 문제의 실마리들이 풀려나가고 있음에 희망을 갖고 개식용 종식까지의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홍보 활동이 더욱 필요할 듯합니다.”

- 모금홍보팀 홍현진 팀장

“전시동물에 대한 시민의식이 성숙해지고 있음에도 동물 전시 및 쇼를 진행하는 시설에서는 그런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동물들의 복지가 향상되도록 더 열심히 뛰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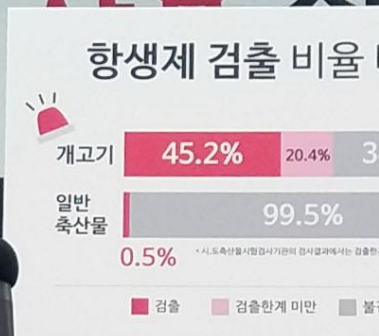
- 정책팀 황미혜 활동가

“동물보호교육도 조기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정신 역시 중요하고 이것은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교육의 대상을 넓혀 어린이 뿐만 아니라 청소년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 교육본부 박은정 활동가

개들의 항생제 사용 실태

Korean Animal Welfare Association
동물자유연대



입법·정책 및 연구조사

식용 사육 개
항생제 남용 실태 조사

■ 동물보호법 개정

2016년 동물자유연대가 밝혀낸 강아지공장의 참혹한 현실을 반영하여 동물 생산업을 허가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제349회 국회 본회의에 상정,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2018년 3월부터 시행되며,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생산업(번식업) 허가제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영업자에 대한 매년 1회 정기점검, 점검결과 보고 의무가 신설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자의 허가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유기·유실동물 포획 금지

개정된 내용에는 유기·유실동물을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로 규정했습니다. 길고양이 또한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 되어 '울산 나비탕 사건'과 같은 위기에 놓인 길고양이에게 희망적인 조항입니다.

도박목적 동물 이용 및 동물대여업 벌금 신설

동물 대여업에 대한 규제도 전혀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영리 목적의 동물 대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유기동물 과태료 상향

동물을 유기했을 때 물게 되는 과태료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동물학대 범위 확장

학대 행위의 방법을 현행보다 넓게 규정하였습니다. '악마 에쿠스 사건'과 같이 죽음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 받지 않았던 동물학대 조항의 허점이 개정되었습니다.

동물학대 처벌 강화

동물학대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동물학대 상습범에 대한 처벌도 무거워질 예정입니다.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반려견은 꼭 등록해주세요. 과태료 대상인 인식표 미부착, 배설물 미수거에 대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영업 종류의 세분화

동물전시업(애견카페 등),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되는 영업 종류는 등록 대상으로 관리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19대 대선 정책 제안

지난해 정부정책에 동물복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19대 대선과 정 당시 후보자에 동물보호 정책 제안서를 보내 답변을 받고 각 후보별 동물보호 정책 동의지수를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대선 후보들과는 동물권 향상을 위한 정책협약 등의 활동을 진행 하였습니다.

■ ‘구포개시장 업종전환’ TF 공동추진

동물자유연대는 12월 19일 발족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내 ‘구포시장 업종전환’ TF 실무단으로 참여중입니다. 부산시 및 북구청과의 협의를 통한 개시장 상인들의 전업지원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 개정 활동 역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축산업 근본적 개선 대책 마련 TF 참여

좁은 공간에 몰아넣고 기본적인 행동조차 제약하는 공장식 축산 은 그 자체로 동물학대입니다. 매년 겨울 전국의 가금류를 죽음 의 공포로 몰아 넣었던 정부의 잘못된 살처분 정책의 전환을 요 구하고, 밀집사육 등 축산업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활동

환경부가 돌고래를 포함한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하였고, 비인도적 방 식의 포획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마련과 돌고래 수입제한이 아닌 금지로의 전환 또한 수족관 내 돌고래의 자체번식을 금지하며, 돌고래 전시시설의 추가 설립 금지 및 기존 시설의 돌고래 사육 시설 기준을 강화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연구조사



식용 사육 개 항생제 남용 실태 조사



전국 **12개 지역** 재래시장
총 91개 샘플 조사



61개 샘플에서 항생제 검출
검출율 65.4%

2017년 2월부터 8월까지,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3R동물복지연구소에 의뢰해 식용으로 사육하는 개농장에서의 항생제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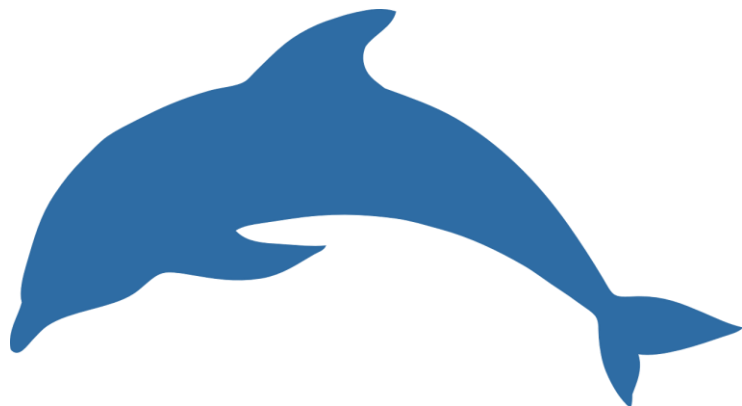
개농장의 항생제 남용문제는 근본적으로 개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그 영향이 동물에게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항생제의 남용은 내성균을 양성하며, 이는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개 사육장에서 항생제 오남용 실태가 이러한 데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농장 사육 실태 파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쓰레기가 개들의 먹이로 공급되면서 개사육장의 존립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개의 열악한 사육 환경과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음식쓰레기의 급식은 개가 질병에 취약한 조건이 되고 이는 항생제 사용을 부추기게 됩니다.

축산법상 가축에 개가 포함되고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적인 개 사육실태 현황 조사를 통해 개식용 사육을 종식하기 위한 대책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부는 개의 먹이로 유입되는 음식물쓰레기 공급을 차단해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정부의 식용개 사육환경 전수 조사 및 금지에 대한 로드맵과 정책 수립을 촉구하며, 개식용 종식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조사

전국 고래류 사육시설 현장 조사



전국 **8개 사육시설** 조사

33년

1984년 국내 돌고래 쇼 시작 이후
33년만의 첫 전국적인 조사

2017년 이정미 의원실과 정부 관계자, 동물보호 단체들과 함께 전국 고래류 사육시설 현장 조사를 실시, 부실한 관리실태를 밝혀냈습니다. 이는 1984년 서울대공원에서 돌고래 쇼를 시작한 이래 33년 만에 처음 이루어진 전국적인 조사이기도 합니다.

민관합동 조사단은 8개 사육시설을 대상으로 수족관 돌고래의 질병 및 건강상태, 수조의 크기와 부피, 생활공간 및 휴식공간 제공 여부, 환경풍부화 및 행동풍부화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돌고래 생활공간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상주 수의사가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8곳의 업체들은 염도, 수온, 잔류염소농도 등을 제각각 관리하고 있었고, 여수 및 제주 한화아쿠아플라넷, 울산 장생포고래박물관 등은 적조발생, 해수염도변화, 지하수 오염 등에 대한 위기 대응매뉴얼도 갖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자료가 수족관 업체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있어 정부의 관리 부실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를 근거로 정부의 고래류 사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돌고래 수입금지를 위한 야생생물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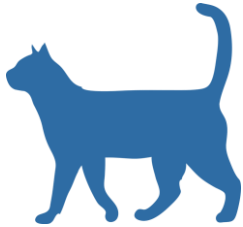


나눔사업

길고양이TNR 지원사업을 통해
TNR을 진행한 서울숲 길고양이

나눔사업

캣맘협의체 길고양이 TNR지원사업



651마리 지원

-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및 복지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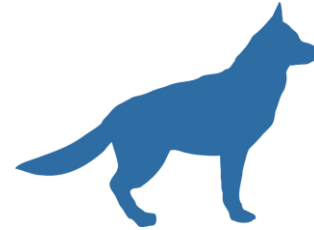
풀뿌리동물보호단체 지원사업



132마리 지원

- 안락사 위기의 유기동물 구조 및 입양 문화 확산
- 132마리 지원 71마리 입양 (입양률 54%)

HIGH PAW 구조동물 치료비
&개인TNR 지원사업



363마리 지원

- 위기 동물들에게 새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한 치료비 지원 사업

나눔사업



엄마 고양이를 잃고 집 앞에 찾아온 아기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아기 고양이는 허피스에 걸려 있었고 작은 몸으로 병을 이겨내기 쉽지 않아 보여 구조를 하게 되었지요. 허피스를 치료하는 과정 내내, 사람을 잘 따르는 아기 고양이를 다시 길 위에 방사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료 후 입양을 결심하고 동물자유연대에서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쿨룩쿨룩 기침을 하던 아기 고양이는 '미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따스한 보살핌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 서울시 양천구 목동 이○○님 돌봄

동네 공터 컨테이너 밑에 살던 5마리 백구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보살피는 사람 없이 방치되어 있던 백구 형제들이 어느 날부터 1마리씩 사라지더니 2마리만 남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간 건지 누군가 데려간 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구조자님은 강아지를 키워본 적 없었지만 살리고 싶은 마음에 동물자유연대 “HIGH-PAW” 지원 상담을 받고 치료 도움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은 백구는 ‘멍멍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가족과 친구가 생겼답니다.

- 대구시 동구 이○○님 돌봄

동물자유연대의 캣맘협의체 TNR 지원사업으로 길고양이들의 마구잡이TNR이 아닌 중성화수술부터 아픈 아이들 검진/치료까지 완벽하게 관리를 받고 안심하면서 방사를 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던 저희 길아이들에게 이런 혜택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더할 나위 없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길고양이를 위한 치료지원사업이 확대되기를 바래 봅니다.

-행복냥이 꿈꾸개

“TNR지원뿐 아니라 구내염, 응급을 필요로 하는 길고양이들에게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동물자유연대가 길냥이들의 보호자인 것처럼 마음이 든든한 한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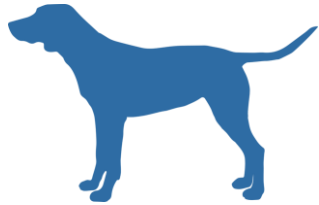
- 수원시 캣맘캣대디협의회



반려동물복지센터

반려동물복지센터
제1관 전경

반려동물복지센터



410마리

현재 돌봄중인 반려동물
2017년 12월말 기준



182마리

2017년 입양된 반려동물
2017년 신규 입소 217마리



1078건

일대일 결연 신청
2017년 합계



1220명

자원봉사자
2017년 합계

반려동물복지센터

“헉~ 왜 이리 늦게 오셨어요. 많이 기다렸어요.”, “밥! 밥! 밥! 배고파요~ 멍멍 왈왈 이야옹~~~”

시골벽적 요란스럽게 반려동물복지센터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밤 새 아픈 곳은 없었는지 걱정 반으로 시작한 아침은 한 그릇 똑딱 비운 밥그릇에 함박웃음 피어 납니다.

햇살 좋은 오전 산책에 신이 난 친구들도 있고, 중성화 수술을 받기 때문에 아침밥을 먹지 못해 심통 난 친구들도 보이네요.

오늘 가족을 만나는 친구는 꽃단장이 한창입니다. 아껴 두었던 새 옷 꺼내 입히고 활동가의 마음은 기쁨에 설레지만 혹여 집 나가 길 잃을까 노심초사 하게 되네요.

왕복 4시간, 현장에 나갔던 활동가들이 빈 케이지로 돌아왔어요. 벌써 두 번째 허탕. 매섭게 추운 날씨에 몸도 성치 않은 녀석인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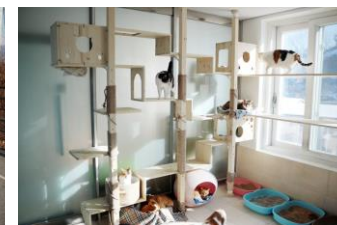
오후에는 반가운 대모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세상에나, 결연 동물의 모습을 직접 그려 예쁜 액자에 담아 오셨어요. 우와~ 우리 대모 정말 멋지세요!

저녁이 가까워오니 돌풍과 함께 눈발이 날리기 시작합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내리네요. 몇 년간 짬만 했던 제설기를 드디어 구입했는데 야속하게도 아직 도착하지 않아 슬픔니다.

반려동물복지센터의 하루는 희.로.애.락.

기쁘고 즐거운 일도 동물과 함께여서 더 행복하고, 슬프고 노여운 일도 동물과 함께여서 더 빠르게 헤쳐 나갑니다.

무엇보다 뜻을 함께 하는 회원님들의 지지와 격려가 있기에 반려동물복지센터는 소외된 동물보호소가 아닌 따뜻한 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반려동물복지센터



“약자인 동물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우리 모두의 밝은 미래를 직시할 때입니다. 고통 받는 동물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시고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반려동물복지센터 윤정임 국장

“학대대응팀 활동가로 근무하며 생명체로서 존중 받지 못하고 물건과 다름없는 대우를 받는 동물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사회가 누구나 당연하게 동물을 생명으로 존중하고, 약자로 배려하는 날까지 차별 받는 동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학대대응팀 구철민 활동가

“고통 받는 동물에 대한 연민을 깨닫고 이해하고 실천하기까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복지센터 동물들의 사연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겠습니다.”

- 입양결연팀 조은희 활동가

“소외된 동물들의 따뜻한 쉼터, 반려동물복지센터에서 동물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삶이라 생각합니다. 동물들이 버려지기 전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되돌아가 가족의 품에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늘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만나지 못한 동물들의 마지막도 늘 경쟁해야 하는 동물보호소가 아닌 따뜻한 가정이길 바라봅니다.”

- 동물관리팀 이현경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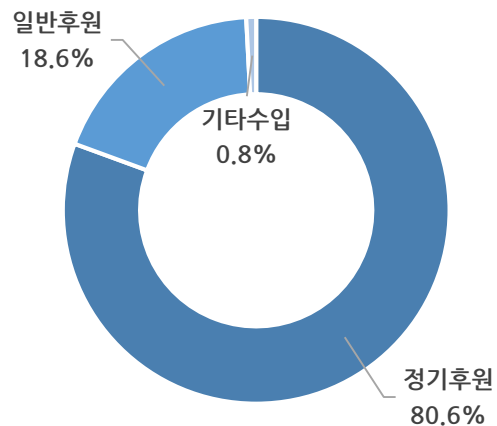


극심한 외이염이 걸린 채
떠돌이 생활을 하다 구조된 소리

재정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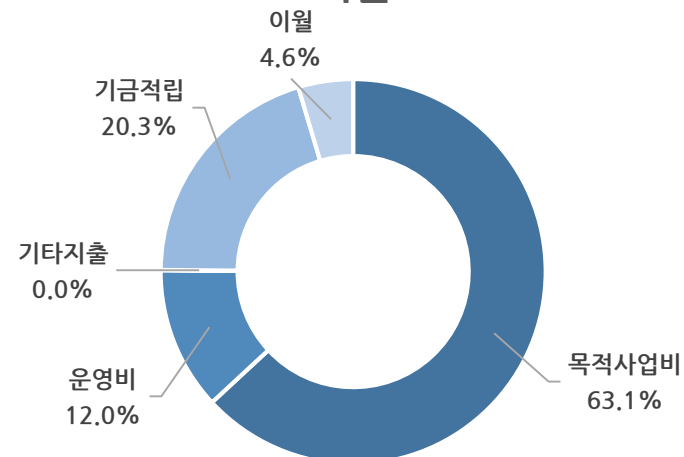
재정보고

수입



수입	
정기후원	3,540,259,136
일반후원	816,560,551
기타수입	36,287,205
합계	4,393,106,892

지출



지출	
목적사업비	2,772,472,536
운영비	527,414,652
기타지출	1,035,402
기금적립(보호소 건립 등)	890,000,000
이월	202,184,302
합계	4,393,106,892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17길 1-77 (우04714)

전화 : 02-2292-6337 팩스 : 02-2292-6339 이메일 : admin@animals.or.kr